

##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거듭난 고린도교회

### -복음으로 여는 고린도후서-

이사야 43:18-19, 고린도후서 3:3

정윤돈 목사님

\* **사43:18-19**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 **고후3:3**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주와 천하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치있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약속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옵나니. 그러나 인간들이 어리석게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서 오만 가지 죄로 불신자상태에 빠져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께서 구원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평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자격도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옵나니.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와 헌신과 기도와 찬양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영육 간의 절대불가능한 부분도 치유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과 축복을 뛰어넘어 나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나의 현장을 위하여, 특별히 후대 램프를 위하여, 이 나라와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울림하며 생명을 걸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지난 한 주간도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과 아픔 속에 있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러한 모든 어려움을 주신 이유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며,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계획과 절대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나에게 주시는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도전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 들어가는 말씀

오늘 성경본문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문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우물쭈물 빠지거나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은 과거에 지나간 이야기를 너무 많이 생각한다는 것이다. 과거에 상처받은 이야기, 어려웠던 이야기, 누가 나에게 했던 비난의 말들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영적으로 병들어 되어 진도와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과거에 매여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된 성공자, 세상적으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결코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일본 머스크 같은 사람은 왜 그토록 화성에 가려고 도전하는지 모를 정도로 끊임없이 미래를 향해 나아간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 도전해야 할 것, 돈을 벌어야 할 것, 개발하고 공부해야 할 미래의 목표가 너무 많기에 과거의 일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당연히 겪는 일이라 여기고 넘겨버린다. 과거에 안 당고 밟고 싶었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고 얼굴도 가물가물하며 심지어 왜 그토록 미워했는지 이유조차 기억나지 않게 마련이다. 당시에는 그것이 대단한 문제 같았지만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기억도 나지 않을 그런 일들을 위해 귀한 에너지와 신경을 쓸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잊어버려야 한다.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받은 기억, 학업을 위해 외운 영어 단어처럼 정말 좋은 것들은 철저히 기억해야 한다. 그러나 그 외의 상처들은 모두 사단에게 속는 헛된 것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새 사람을 붙여주시고 새 일을 행하시며, 새로운 제자를 세우실 축복된 계획을 수없이 많이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무엇을 할 것”하며 과거를 탓하지 말고, 주님이 광야같은 현장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어야 한다. 절대불가능한 상황에서 절대가능한 일을 행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준비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리고 참된 성공자가 되어 있느냐이다. 참된 성공자는 땅 투기나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성공자란, 오늘 내 인생에 찾아온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 그 모든 열려를 온전히 주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살림(평안)’을 누리려는 자가 바로 영적인 참된 성공자이다. 오늘 본문의

고린도교회 역시 수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었지만 훗날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주신 이유를 발견하고 그것을 오히려 아름다운 영적 작품으로 만들어낸 참된 성공자들의 표본이다. 절대불가능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절대가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줄 믿길 바란다. 하나님은 어떤 아픔과 어려움도 다 미래의 발판으로 만들어 주신다. 우리 후대와 교회, 교단과 나라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철저히 보장되어 있으니 당장의 문제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 소망 가운데 오늘을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을 성공하는 방법은 다음의 5력(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를 탄탄히 세우는 것이다.

① 첫째, 영력이다. 매일 깊은 기도와 호흡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참된 행복을 누리야 한다. 문제가 생겼다고 툭툭 내뱉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결정을 내릴 때 철저히 기도해야 한다. 목회자들도 기도 없이 쉽게 교회를 개척하거나 친척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선교지를 정하는 식으로 알뜰하게 결정해서는 안 된다. 300%준비되어야 하며 깊이 기도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수많은 문제를 두고 깊이 기도하며 소통했기에, 오히려 인류 역사상 최고의 명작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는 위대한 영적 작품을 남길 수 있었다. 우리는 강단메시지를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고 그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 그렇다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억지로 영접되기를 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이었지만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말씀을 이야기를 나누어야 한다. 삶 속에서 말씀을 나눌 때 비로소 내가 교회에 가야 할 이유, 예배를 드리고 메시지를 들어야 할 이유를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 “나는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번 주에 목사님이 이런 훈계의 말씀을 주셨어. 성경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서 밑줄을 그었는데, 나도 한번 이 말씀대로 해봐”라고 전하는 것이다. 세상의 책은 그저 지식을 나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르다. 친구에게 “이번 주에 목사님이 성경을 본문으로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어. 그러니까 내가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선생님께 혼났던 그 모든 과거의 상처를 다 잊어버려. 부모님께 잔소리 듣고 섭섭했던 것도 다 기억하지 마.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미래가 있어”라고 언약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한다. 이 생명의 말을 전해야 친구의 영혼이 살아나지 않겠는가.

② 둘째, 지력이다. 평생 공부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남에게 49%를 빼돌렸다면 나머지 51%의 시간은 자격증을 따고 새로운 것을 배우며 영적, 육신적 전문성을 기르는데 투자해야 한다. 유대인 탈무드에도 “공부하다가 2년을 쉬면 일체가 공부한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고 했다. 어머니께서는 “어렵고 취직이 안 될 때는 공부해라”라고 하신 말씀을 깊이 새겼다. 어느 분야든 10년은 공부해야 그 분야의 조금의 전문가라 말할 수 있다. 서점에서 수많은 책을 훑어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단 한 권의 책은 항상 책상 위에 두고 수없이 반복해서 읽는다.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지만 그 성경의 한 구절(예 : 항상 기뻐하라)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백 권의 독서와 공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③ 셋째, 체력이다. 음식을 먹을 때도 절제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폭식하는 것은 스스로 병을 자초하는 일이다. 날씬하고 건강한 사람들은 항상 식사량을 조절하며 24시간 철저히 건강을 생각한다. 우리가 운동을 하고 몸을 가꾸는 이유는 바디프로필을 찍어 자랑하거나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함은 아니다. 체력이 영력이다. 오직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며 사람을 살리는 데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체력이 필수적인 것이다. 직장이나 사역현장에서 습관적으로 “나 몸이 아프다”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어떤 중요한 일도 맡을 수 없게 된다. 자기 건강은 스스로 책임져야 하며, 하나님이 맡기신 3천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체력을 길러야 한다.

④ 넷째, 경제력이다. 경제력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근검절약하고 돈을 모아 투자하며 깊이 공부해야 한다. 어설피게 부동산이나 주식을 공부 없이 덤비는 것은 시행착오를 빚지만 투기일 뿐이며 언젠가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단 1만 원이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먼저 헌금, 십일조를 드려야 한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단 한 번도 빠짐없이 십일조를 드렸는데 넘치게 부자가 되진 않았어도 하나님은 항상 때에 맞는 필요를 채워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없었다. “주일성수하여 건강축복받고, 십일조하여 물질축복받자”는 과거 부흥사들의 전형적 표어 같지만 그것이 내 머리에 각인되었고 실재이다.

⑤ 다섯째, 인력(인간관계)이다. 사랑하고 기다려주며 오래 참는 힘이다.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잡아야 한다. 직장동료나 가까운 사람들이 나에게 피해를 주고 아픔을 줄 때, 그들을 용서하는 넉넉한 인력이 있어야 비로소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다.

#### 1. 사도 바울의 고린도교회 편지 기록과정 및 문제들

고린도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같은 시대적인 사명자 부부를 만나 불과 1년 6개월이라는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큰 부흥을 이룬 교회였다.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많아지면 필연적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떠난 뒤, 영적으로 제대로 훈련되지 못한 성도들 사이에서 수많은 문제가 붙어졌다. 글로에의 집 사람들을 통해 이 참담한 소식을 전해들은 바울은 편지를 보내고, 자신의 최고제자인 디모데를 파송했다. 그러나 완악해진 고린도 성도들은 디모데를 거부하고 내쫓아 버렸다. 하나님의 종의 권위로 주신 메시지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을 만큼 그들의

영적 상태는 황폐해져 있었다. 심지어 그들은 바울의 사도권을 비난하며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12제자가 아니다, 외모도 볼품없고 키도 작다, 설교 할 때 말을 심하게 더듬는다"라며 조롱했다. 설교자의 발음이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성도들은 목사님의 설교나 환경을 핑계 댈 것이 아니라, 주보에 나서서 하듯 한 자라도 적고 마음에 새겨 가정과 현장에서 포럼처럼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당장 방문하러 했지만 계획을 변경했다. 자신이 그곳에 가면 분노와 혐의로 심하게 꾸짖게 되어 성도들이 더 큰 상처를 받고 "목사님이 우리에게 상처를 줬다"며 사방으로 불평하고 다닐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직접 방문하는 대신 디도를 통해 눈물의 편지를 보냈다. 성도들은 약속을 어겼으며 또 시비를 걸었지만, 참된 리더는 상황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위해 계획을 변경할 줄 알아야 한다. 영적 프로는 이런 일에 불만과 불평을 품지 않는다. 복음을 아는 자, 기도를 아는 자, 전도를 아는 자, 교회를 살릴 사람은 이런 것에 아무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다 해결하고 살려야 될 일이고 응답받을 부분이지 문제를 삼을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당대가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영적인 프로 역시 감독(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왜 나를 안 써주시냐"고 불평하지 않고 묵묵히 영적 국가대표로서의 자리를 지킨다. 오늘을 성공하여 참된 성공자가 되길 바란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을 하셨다. 왜 하셨는지 생각해보니 "40일을 굶어도 절대 죽지 않는다. 그러나 정말 40일 하기 전까지는 절대불신앙하지 말라"는 마음에 깨달음이 왔다. 절대믿음 안에서 믿는자의 땅에 되길 축원한다. 당시 고린도교회가 직면했던 근본적인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1) 창세기 3장의 울무에 묶인 성도들 성도들은 사탄에게 속아 끊임없이 분열하고 다투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은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말쟁이라고 했다. 사탄에게 결박되던 감사하지 못하고 불만과 불평만 쏟아내게 된다.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본성대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옳다, 내가 틀렸다,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며 선악을 판단하고 율법주의에 빠져 교회를 분열시켰다.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선악과가 아니라, 내가 먼저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타인도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

2)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의 틀을 벗지 못한 성도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창세기 6장의 네피림의 틀을 벗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은 불신자상태에서 가졌던 과거의 타락한 문화, 무속과 점술과 우상, 그리고 세상의 정치, 경제, 전통, 종교, 예술의 문화에 깊이 빠져 있었다. 그 결과 서로 싸우고 질투하며 귀신의 문화에 끌려 다녔고, 내면에는 흑암, 혼돈, 공허가 가득하여 응답을 받지 못했다. 서로 자기가 옳다고만 주장할 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기다려 주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혼란이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갈등하고 방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가 노예라면 불만이나 불평조차 할 수 없고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한다. 대기업에 다닐 때 회장 앞에서 함부로 행동할 수 없는 이유도 기업에 매인 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압이 아닌 자유를 주셨다. 우리는 그 자유를 방종하는데 쓸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고 헌신하며 성도를 살리고 나를 희생하는 현장으로 나아가는데 사용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저지르면 '저 사람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을 품고 도우라고 사명을 주셨구나'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기를 바란다.

3)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함정에 빠진 성도들 그 결과 그들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철학과 언변을 내세워 자기 자랑과 자기 주장만 일삼았다. 고린도는 그리스 아테네 문화의 영향력이 강했던 지역이었기에 사람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철학을 더욱 자랑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부자인 것을 과시했다. 부자와 귀족들끼리만 모여 석찬예식을 하면서 자기들끼리만 배불리 먹고, 가난한 사람들과 노예들을 철저히 무시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종이나 노예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한 형제라고 가르쳤다. 당시의 문화가 계급적일 수밖에 없었음에도 복음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또한 어떤 성도들은 예언이나 방언 등 하나님이 주신 영적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신이 더 우월하다며 다투었다. "내가 복음을 더 깊이 깨달았다, 내가 더 열심히 한다, 내가 성경을 더 잘 안다, 내가 방언과 예언에 더 뛰어나다"며 경쟁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섬기라고 그 은사를 주셨지만 그들은 그것으로 자기 주장을 펴고 자랑하는 데 사용했던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부분을 엄히 꾸짖은 것이다. 이 외에도 결혼문제, 성찬문제, 심지어 사도권 문제까지 일어났다.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말도 제대로 못 하지 않느냐, 키도 작지 않느냐, 지난번 방문 약속도 안 지키지 않느냐,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지 않았느냐"며 비난했다. 나아가 "예루살렘의 12제자에게 공식적으로 받은 추천서나 파송장도 없지 않느냐"며 그를 배척할 이유를 끊임없이 찾아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편지를 보내며 이들을 심하게 꾸짖람하고 훈계했다. 처음에는 이 훈계를 듣고도 회개하거나 변화되지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엄한 훈계의 말씀을 듣고 결국 그들은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되었다.

## 2. 권면을 받고 변화된 고린도교회의 거듭남

침착한 문제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고린도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훈계했다. 잠언 12장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니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고 했다. 오늘날 자녀들은 꾸짖람을 듣지 않으려 하고 부모를 상전처럼 대하지만 훈계를 달게 받는

자만이 영적으로 성장한다. 과거에는 손님이 오면 방에서 꼼짝 않고 예절을 지켰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함부로 뛰어다니는 시대가 되었다. 일본의 심주환 선교사님도 5살 때 손님 앞에서 뛰어다녔다가 아버지에게 심하게 맞으며 예절을 배웠다고 한다. 유치부 아이들도 1시간 반 동안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는 불량한 영적 상태로는 절대 세상을 살릴 탠넛트가 될 수 없다. 누가 참된 성공자인가? 바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이다. 예배에 깊이 집중할 수 있으면 삶의 나머지 모든 부분에도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이를 기근지 인성과 사랑을 받게 된다. 히브리서 12장 6절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고 말씀한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징계하고 훈련하신다. 히브리서 12장 8절은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고 했으며, 12장 9절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가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고 하셨다. 또한 12장 11절에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기록되어 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나 운동하는 사람들을 보면 코치진이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고 꾸짖는다. 하지만 선수들은 그 훈계를 달게 잘 받아들인다. 그래야만 진정한 프로가 되고 대표선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훈계와 징계를 받을 당시에는 누구냐 다 그것이 나쁘고, 성경의 표현처럼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 반드시 나의 영적인 발판으로 만들어야 한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도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아픔, 질병,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허락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어려움과 책망을 통해 나 자신을 철저히 갱신해야 한다. 진정으로 참된 성공자는 누구인가? 주님의 훈계를 듣고 조금씩 나를 바꾸어 가며 성장해 나가는 사람이다. 영적으로, 지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만이 결국 참된 리더가 되고 인생의 성공자가 된다. 지금 당장 공부를 조금 더 잘하고 못하고는 사실 아무런 상관이 없다. 여러분이 훈계를 통해 조금씩 나를 성장시키고, 갱신하며, 스스로를 개혁해 나간다면 어느 순간 영적 서밋의 가장 높은 자리에 우뚝 서게 되는 응답의 시간표가 반드시 올 줄 믿는다. 그 방법은 오늘을 성공하는 것이다.

1) 사도 바울이 위로할 정도로 변화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을 보면 '위로'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등장한다. 잘못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더 이상의 책망이 아닌 넘치는 위로가 부여된다.

2) 사도 바울이 기뻐할 정도로 회개함 고린도후서 7장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룬 까닭이라"고 바울은 진심으로 기뻐했다.

3)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거듭남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선언하며, 3장 3절에는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남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한다. 불신자들은 성경의 활자를 읽지 않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를 읽는다. 한국 교회가 타락했다고 핑계 댈 필요 없이, 현장에서 나 한 사람이 빛과 향기가 되면 불신자들은 나를 보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

4) 새로운 피조물로 근본치유를 받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포한다. 근본적인 치유가 이루어진 것이다. 근본치유가 안되면 교회 안에서도 평생 싸움만 일어났다. 내 고향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극심하게 싸워 목사님을 5명이나 내쫓고, 심지어 예배 직후 경찰서에 가서 인원수대로 현금을 나눠가질 만큼 타락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며 묵묵히 기도자리를 지키던 남은 권사님들의 눈물 덕분에 훗날 좋은 목사님이 오셔서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는 응답을 받았다. 우리 역시 묵묵히 현장에서 기도하며 빛을 발하면 반드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5) 거역의 연보를 드리는 선교하는 교회로 변화된 고린도후서 8장 20절에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역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는 말씀처럼 고린도교회는 극심한 경제적 압박을 겪는 예루살렘교회를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아 엄청난 거역의 현금을 드렸다. 갈등하고 다투던 교회가 구제와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완전히 거듭난 것이다.

## 결론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속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린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소중한 언약의 메시지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린도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부흥하였지만 사람이 많아서 생각이 다르게 수많은 문제가 생기고 시대가 역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속임수에 절대 흔들리지 않고 오늘 하루를 영적으로 성공하며, 진정으로 복음과 기도, 전도를 아는 자가 되어 수많은 문제 속에서도 평안을 이루는 참된 성공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온전히 살려야 하겠사오니 그 개인과 가정, 특별히 후대와 산업과 직장의 현장 위에 하나님께서 천만 배의 넘치는 축복으로 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